

2020년 2월 12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과 장 김경미(044-201-2051), 사무관 박승민(2054)/ 제공일: 2월 12일(총 2매)  
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과 장 정경록(044-203-5920, 사무관 조정희(5922))

적령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## 미국이 개도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농업부문 관세·보조금에 직격탄을 줄 것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

[2월 12일 서울신문 024면 < “美, 개도국서 우리나라 제외...농업부문 관세·보조금 직격탄” > 보도에 대한 해명]

- 현행 농업 관세와 보조금은 차기 WTO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.
- 2월 12일 서울신문 024면 < “美, 개도국서 우리나라 제외...농업부문 관세·보조금 직격탄” > 제하의 기사 일부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### 주요 언론 보도내용

-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함.
- 미국이 개도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농업부문 관세·보조금에 직격탄을 맞음.
- 미국 무역대표부(USTR)는 상계관세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개도국과 저개발국 명단을 개정해 관보에 게재함.
  -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, 인도 등 25개국이 명단에서 빠짐.

##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

- 기사에의 내용이 된 금번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는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.
- 차기 WTO 농업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농업부문에 대한 현행 관세 및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.
- 미국의 이번 조치는 WTO 보조금 협정상 “상계관세 조사를 면제받는 미소기준(*de minimis*)” 우대를 적용받는 개도국 명단을 고시한 것입니다.

\* 우리나라는 미국의 '98년 고시당시에도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